

세계의 민족문제 (上)

金 鍾 七

(대한석유협회 홍보과장)

지구촌은 최근 21세기를 앞두고 東유럽·소련·中東 등지에서 이른바 「이데올로기의 종언」이 확산되는 한편 페레스트로이카에 대한 다각적 추진이 한창이다.

뿐만 아니라 그러한 개혁바람과 더불어 세계 도처에서는 현재의 국경구획에 불만을 갖는 여러민족들이 자신의 고유문화와 종교신앙을 부흥시키자는 조직운동이 정부정책과 마찰을 빚고 있다. 국제경제에도 영향이 많은 이런 문제지역들에 관해 외지자료를 통해 살펴본다.

1. 민족과 영토

<중첩되는 비극성>

세계 어느지역에서나, 민족문제를 말할때에 사람들은 「종교적」이라 할만한 상상력에 빠져든다. 어느 민족의 자량이나 궁지가 손상받게 되면 바로 어제까지 온순하고 화평스럽던 사람들이 이웃민족을 습격하거나 불지르고 약탈까지 하는 것은 어찌된 일인가.

궁핍을 해결하는 경제문제가 인간생활에서 가장 중대한 것임을 알고 있지만, 그런 경제문제는, 국경분쟁이나 독립의지등이 사람들 정서를 흔들어 민족생사와 연결되는 경우에 비해서는 영향력이 적은 편이다. 그 이유는 도스토예프스키식으로 말하자면, 토지(땅)가 인간에게 있어서 단순한 경제적 중요성 만이 아니라 그 이상의 도덕적 의미를 갖기 때문이다.

요즘 소련에서 소란스러운 민족문제는, 이른바 민족과 영토와의 관계를 고찰 할때 말할 수 없는 비극성을 느끼게 한다. 왜냐하면 덩치 큰 민족이 「국민통합」이라는 명분으로 중간크기 정도의 민족을 압박하고, 그 중간민족은 또 더 작은민족을 「독립주권」이라는 명분으로 역시 억압해버리는 비극의 복합성이 보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민족주의적 개성이 강렬한 감싸폴데아 최

고희의 의장의 지휘하에, 소련으로부터 독립코자 하는 그루지아공화국에 저항중인 오젯트인들 그리고 그루지아인들 또 러시아인들과의 관계가 바로 그러한 중첩된 비극성이다.

<레바논화한 소련의 속사정>

이런게 무슬림(이슬람교도)인 오젯트민족이 주민의 70%나 되는 南오젯테이아 차지주는 인구 약 10만 뿐이지만 「소비에트연방공화국」속의 연방일원으로 남아있기를 원하는 바람에 1990년 9월 드디어 그루지아공화국으로부터의 독립·분리를 선언하고 나선다. 이런 사태를 초래한 연원을 보면, 스탈린시대의 분할통치정책에 의해 오젯트인의 거주권이 러시아소속의 北오젯테이아自治共和國과 그루지아소속인 南오젯테이아自治州로 분할되면서 부터 비극의 씨앗이 뿌려진 것이었다. 흰눈 쌓이고 정적이 감돌던 南오젯테이아 지역은 이제 「카프카즈의 레바논화」라는 상징이 되고 있다. 아브하지아 및 南오젯테이아 등 무슬림민족지역의 무력충돌 따위의 그루지아민족문제가 격화되는 동시에 이에 수반하여 소비에트연방과 그루지아공화국 간의 대립양상도 겹쳐 마치 「소련의 레바논화」와도 비슷한 혼미의 상징이 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사태변화는 소련이라는 나라를 다양한 꼴로 즉 세분화 및 단편화로 몰아 넣었다. 「민족의 낙토」라는 환상이 「민족의 각축장」으로 변해버린 균열로 말미암아, 유럽 대 아시아, 기독교 대 이슬람교라는 매크로적 文明論차원으로부터 관습·풍속이 다른 민족대 민족이라는 미크로적 개별현실론次元에 이르기까지 다층적 내지 다층적으로 문제의 폭이 넓어진 것이다.

<소련의 민족문제 네가지側面>

소련은 그들 자체로서 「하나의 세계」라고 자주 일컬어 왔지만 현재 소련의 민족문제는 「세계의 민족문제」를 압축한듯하다. 그 문제를 정리하면 다음의 4가지로 나타난다.

①분리독립-소련으로부터의 이탈과 완전주권의 독립국을 목표로 하는 리투아니아 공화국등 발트海연안3

국이 대표적 케이스. 그루지아 및 몰다비아공화국도 분리를 원한다. 1991년 3월 17일 연방제유지여부에 대한 국민투표에서 부정적 결과를 보였던 아르메니아공화국도 같은 목표를 향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②문화적자치요구 - 이 유형은 중앙아시아를 비롯해 여러 무슬림계 민족들에게서 보이는 역사해석의 자유, 언어·문화의 자립화 및 환경보전에 대한 욕구등으로 나타난다. 러시아·내셔널리즘도 어느정도 이런 특성을 보인다. 또한 우크라이나 및 白러시아로부터 시베리아지역의 소수민족에 이르는 사람들도 같은 생각을 갖게 되었는데, 우크라이나 처럼 문화적 내셔널리즘은 곧 정치적 내셔널리즘으로 변하기 쉽고, 그것이 「분리독립」으로 까지 발전되는 경우도 나올 수 있겠다.

③경제·귀속변경 - 이런 측면에서 유명한 것은 나고르노=카라바라自治州를 둘러싼 아르메니아인의 주장이다. 즉 北아시아의 토우와인과 브리야트인 사이에 보이는 몽골공화국에의 귀속여부, 리투아니아에 대한 白러시아로의 영토반환요구도 마찬가지. 또한 무슬림민족으로 공산주의자인 술탄가리에프가 1920년대 초반에 부심한 타타르인과 바시키르인과의 통일공화국 실현운동도 활발해지고 있다.

④고향복귀 - 제2차대전시 독일군에게 협력했던 혐의로 거주지에서 추방되었던 불가·도이취인, 크리미아·타타르인, 또 터키공화국에게 실질적으로 협조했던 메스헤티아·터키인 등이 고향복귀의 원망을 안고 있다.

이러한 민족문제의 공통점은 모두가 하나의 민족으로 정치권력을 구성하여 「민족적으로 순수한 영역」을 만들고자하는 충동이다. 이점에서 이상적인 목표는 물론 민족의 민주주의이다. 그래서 자민족우선의 영역과 민족적(에쓰닉) 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운동을 「에드노크라시」(Ethnocracy)라 부를 수 있다.

2. 意識의 底流

〈에드노크라시의 특성〉

민족적 순수성을 갖고 독립영역을 만들자는 에드노크라시 가운데도, 타민족을 배제하여 분리를 목표로 하는 운동과 공존을 인정하면서 독립국가를 만들자는 움직임 등 여러단계가 있다.

이제까지 발트해3국의 분리독립운동에는 원래부터

의 3가지 민족 이외의 주민을 배제하려는 색채가 짙었다. 그러나 지난 2월 9일 및 3월 3일의 독립문제 조사·투표의 결과는 발트 3민족의 이러한 경향을 반성토록 하는 것이었다. 전인구에서 원래의 3민족 점유비율을 대폭상회하는 주민들이 독립에 찬성했기 때문이다. 즉 배타적인 에드노크라시가 아니라 일반적 데모크라시의 가능성을 기대하는 발트지역내 러시아인과 폴란드인의 뜻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는 것이다.

에드노크라시를 둘러싼 민족간 대립은 소련과 같은 다민족국가라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현상이다. 유고슬라비아에서도 「유고인」이라는 「舊국민」의 국적을 이탈함으로써 자유주의를 내걸고 독립국가의 「新국민」이 되고자하는 슬로베니아인 및 크로아티아인들이 있고, 이들과 대립하는 연방유지파로서 세르비아인이 있다.

그동안은 「원만한 국가연합」이 전통적인 연방제도 따위를 선택했지만 이제 크로아티아인과 슬로베니아인은 오히려 이탈리아 및 체코슬로바키아 등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알펜·아드리아 構想」을 매개로 하여 유럽공동체(EC) 통합에 참가하길 바라고 있다.

「풍요한 北과 빈곤한 南」이라는 지역격차에 더하여 에드노크라시가 민족대립을 복잡하게 한다. 세르비아공화국내의 코소보自治州 분쟁은 그러한 예이다. 인구의 77.4%를 차지하는 알바니아인은 13.2%인 세르비아인의 시민적권리를 무시함으로써 분리를 주장토록 유도하고 있다. 알바니아인의 거주지역을 민족화시키려는 에드노크라시로 말미암아 지난 20년간 20만명의 세르비아국민이 고향인 코소보自治州를 버리고 떠났다.

에드노크라시에 따른 민족이동은 소련의 카프카즈지역과 중앙아시아에서도 나타난다. 「분리독립」에서부터 「고향복귀」에까지 이르는 소련과 유고의 민족문제 유형은 걸프전쟁후의 이라크를 비롯해 세계도처의 민족문제에 큰 영향을 주고 있다.

이라크국민 약 1,700만명중 후세인대통령을 지지해온 사람들은 불과 20%에 해당하는 回教 순니派 아랍인이었다. 인구의 55%를 차지하는 것은 바스라 등 남부 중심의 시아派 아랍인이며, 25%는 북부의 순니派 쿠르드족이다. 그런데 이번 패전을 계기로 그들 「민족」에 속한 정치조직은 「분리독립」과 「문화적자치요구」의 움직임이 활발해졌다.

같은 아랍어를 말하는 이라크인 이라해도, 적대국인

이란의 국교 즉 回敎시아派를 신봉하는 사람들이 있고 한편으로 지배층엘리트의 핵을 이루는 순니派사람도 있으므로 이 양파간의 이라크 국민의식 내용은 달라진다. 하물며 같은 아랍권이라는 이유만으로서, 쿠웨이트에 살던 팔레스타인인과 요르단인이 「쿠웨이트 시민」 또는 「쿠웨이트인」으로서의 새로운 국민의식을 갖기는 쉽지 않은 것이다.

〈바뀌는 기존通念〉

이제까지는 사람들이나 민족이 국제적으로 이동하면 그곳에 동화되고 융합됨으로써 민족대립이 해소된다는 생각이 우세했었다. 그러나 사람들의 이동현상이 크게 늘어남에 따라 문화적개성과 차이가 두드러지고 민족의 개성을 강조하는 경향이 최근 민족문제에 부각되고 있다.

즉 어느민족이 스스로를 타민족과 다른 독자적 존재로 생각하는 이유가 영토와 언어의 공통성 뿐만이 아니라 신화 및 상징, 역사적 기억을 바탕으로 전통 및 관습에 나타나는 중심가치사상의 복합에서 구해야 할지도 모르는 것이다. 그러한 「신화·상징복합」이 계승되어 미래의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메커니즘이야말로 어느민족이 독자적 아이덴티티를 유지하고 만들어내는 근거가 된다. 그것은 시간이 경과하여 소멸되는 특징이 아니라 사람들이 반복해가면서 영속시키는 개성이다. 바꾸어 말하자면 사람들의 민족의식은 강제이주와 자발적 이동에서도 변하지 않는 것이다. 그것들은 사람에게 수반하여 공간을 이동해가면서 새로운 거주지에서 재생산되면서 더욱 강화된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함으로써 오랜동안 이산되었던 팔레스타인인이 외국에서도 민족적 아이덴티티(同質性)를 잃지 않는 것도, 소련의 유대인이 오래된 출국규제를 해제받아 1990년에만도 20만명이나 「모국」인 이스라엘로 이민한 것 등은 이른바 「신화·상징복합」을 염두에 두고 이해할 수 있다. 그리고 비극적이지만 요르단江 서안에서 발생하는 소련계 유대인과 점령지 팔레스타인인과의 민족대립이 「신화·상징복합」에 새로운 일면을 부가시키고 있는 것이다.

3. 두가지의 국경

〈논점이 되는 聖스런 확대〉

이라크의 쿠웨이트 침공사태에 대해 서구사회여론

및 우리의 도덕률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열광적반응이 지구촌 일부지역에 치솟았었다.

후세인 이라크대통령에 의한 다국적군과의 대결을 환호하며 지지했던 사람들은 이슬람세계에 널리 퍼져 있다. 모로코에서부터 중국 신장省 위구루自治區, 또한 수루諸島에까지 이르는 이슬람세계에는 주권을 가진 국민·국가의 「보이는 국경」이 있지만 그 이외의 「보이지 않는 국경」도 있는 듯 하다. 유엔가입국의 국경을 정신적으로 넘어설 수 있는 「움마·이슬라미야」(이슬람 공동체)는, 유럽공동체·北美洲·일본·한국 등 외부세계로부터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국경」으로 격리시키는 「聖스런 확대」를 의미한다.

이 광대무변한 공동체에의 귀속의식은 이슬람교도들에게 있어서 「민족」이라는 개념을 독특한 것으로 만든다. 이슬람공동체에 대한 귀속의식, 국민국가에의 충성심, 아랍민족의 동질성과 복합성은 21세기에 더욱 복잡해질 「세계의 민족문제」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논점이 될 것이다.

〈超民族的 카테고리〉

14세기에 아랍이 배출한 위대한 역사가 이븐·할둔은 그의 명저 「역사서설」속에서 칼리프(王)인 우마르가 아랍사람들에게 충고하는 일화를 소개하고 있다. 「당신자신의 계보를 알아라. 그렇지만 이라크의 비유목민인 나바타인 처럼 되어서는 안된다. 그들은 누가 출신을 물으면 나는 이런 저런지역 출신이라고 대답하기 때문이다」

이븐·할둔으로서는 이 경구를 7세기 대정복시대에 아랍인들이 가졌던 민족적 동질성을 보여주기 위해 인용한 것이다. 초기의 아랍인 정복자들은 자신들의 家系와 혈연을 중시하는 반면 출생지나 거주지에 특별한 귀속의식을 갖는 것은 바라지 않았다. 이런 점 때문인지 아랍語에는 「아라비아」라는 말이 없다. 왜냐하면 아라비아라는 말은 西歐式표현으로서 아랍인의 거주지역을 뜻하는 것이므로 아랍語에 그 단어가 없는 것이다.

이슬람이 성립된 직후 강조된 동질성은 혈연적 기준에 의한 것인데, 아랍인은 자신들이 만들어 낸 코스모폴리탄의 이슬람국가에 융합할 뿐만 아니라 무슬림(회교신봉자)로서의 종교적 기준을 중시하게 되었다. 그래서 「經典의 백성」 및 「가피르」(不信者)로 구별하는 무슬림의 집단의식이 超民族的 카테고리로 성장한 것

이다.

「經典의 백성」인 기독교도와 유대교도는 이슬람세계의 내부·외부 거주성에 따라 둘로 구분되는데 이슬람 지배권력과의 관계에서 「즈임미」(보호된 백성)과 「하르비」(전쟁의 백성)으로 구분되었다. 이런 방식은 무슬림(회교도)입장에서 보아, 유대교도 및 기독교도들을 종속적 이교도 또는 적대적 이교도로 구분하는 명칭이다.

이 구분법은 7세기의 오마이야王朝 성립때부터 20세기의 오스만·터키朝 해체시에 이르기까지 이슬람왕조가 지배하는 다민족국가에서도 기본적으로 계승되어 왔다. 그것은 역사상, 아랍人과 터키人이라는 민족적 구별 보다 더 중요한 회교집단적 同質性이었던 바, 오늘날에도 그 영향의 흔적을 남기고 있다.

프랑스혁명이 탄생시킨 애국심 및 내셔널리즘의 풍조가 강했던 19세기 이후, 세계의 회교도는 「보이는 국경」으로 구획된 현세적 공간과 「보이지 않는 국경」으로서의 정신적공간에 양속하게 되었다.

그러므로 이슬람교가 아랍人으로부터 여타 민족에게 확산되었어도 이슬람공동체의 멤버들은 고전 아랍語로 기록된 「코란」(이슬람경전)을 공유함으로 인해 어느 王朝·국가가 코스모폴리탄인 한 그 군주가 누구이든 간에 염려할 필요가 없었다. 이러한 전통은 지금도 남아있다.

하지만 현실의 국제시스템은 다종다양한 문자와 자국어어를 갖는 주권국가들의 「보이는 국경」으로 구성되어 있다. 쿠웨이트와 이라크 사이에 「보이는 국경」이 엄연히 존재했던 것이다. 그 국경은 영국과 프랑스가 利害관계의 조절을 위해 인위적으로 그어놓은 것이었지만 세월이 흐름에 따라 국민국가적 리얼리티로 정착할 수 밖에 없었다.

〈집단의식과 새로운 국제질서〉

19세기 이전의 왕조국가들이 아직도 유지됨으로써 또 한편 새로운 이슬람국제주의적 세계를 목표로 삼음으로써, 이슬람 및 아랍이라는 초민족적 집단의식을 기초로 하는 질서관은 이제 국민국가적 주권 및 프레임을 전제로 한 새로운 국제질서와 충돌하는 국면을 맞고 있다.

그런 현상은 현존하는 국민개념과 다른 「상상의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가는 시험장이 될지도 모른다. 그

럼에도 불구하고 앞서 밝힌 두종류의 국경간에는 민족 문제가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것이야말로 이번 이라크의 쿠웨이트 점령이 빚어낸 비극적 결말에서 배워야 할 교훈이다.

4. 中東지역의 기본구조

〈GCC의 불안정요인〉

사우디	4~6 %
쿠웨이트	15~25%
오만	6~8 %
U A E	6~10%
바레인	50~60%
카타르	5~9 %

아랍국가들은 현재 「아랍연맹」에 가입하고 있는 팔레스타인해방기구(PLO)를 포함해 20개국과 1기관인 셸민데 그 지역 범위가 서쪽의 대서양연안에서부터 동쪽의 인도양연안까지 넓게 펼쳐져 있다.

이들 아랍지역에서의 민족문제는, 예를들어 팔레스타인문제 같은 아랍민족 전체에 걸친 것이 있는가 하면 각국 국내에 스며있는 민족적 종파적 소수문제와 외국 인거주문제 등도 있다. 그리고 이런 두가지가 상호연관된 측면도 있다. 따라서 페르샤만 협력회의(GCC)내의 문제 부터 살펴본다.

GCC를 구성하는 사우디, 쿠웨이트 등 페르샤만안 王政 6개국의 국내에는 回教시아派 주민이 있는데, 시아派가 많은 바레인에 대해서는 특히 이란이 영유권을 주장함으로 인해 내정·외교상의 불안정요인이 나타나고 있다. 바레인을 중심으로 쿠웨이트에서 카타르에 걸친 지역은 역사상 시아派가 많았던 곳이다. 그들 시아파주민의 대부분은 아랍系이지만 이 지역이 아랍化되기 이전의 원주민들 후예라고도 하며 더욱이 이란系주민도 섞여있다. 그래서 민족적 동질성이 일정치 않다.

〈왕족중심의 통치체제〉

이들 지역에서는 18세기초엽 이후, 사우디아라비아 내륙지방으로부터 아랍부족이 이주하여 시아파를 중심으로 한 종전의 주민 위에 군림함으로써 새로운 아랍인들의 지배권이 확립되었다. 현재의 쿠웨이트, 바레인, 카타르에서 지배적입장을 갖는 아랍인들의 지위는 그

때부터 계속된 것이다.

한편 근래에는 이란인과 인도아대륙으로부터의 시아派 이주민이 늘어남으로써 아랍인 중심이었던 아랍에미리트연합국(U. A. E)과 오만에서도 非아랍系 시아派 주민이 증가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부족의 존재가 정치적 사회적 단위로 큰 의미를 갖기 때문에 사우디아라비아의 사우드家와 쿠웨이트의 사바하家의 통치에서 보듯이 왕족 및 그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부족을 중심으로 통치체계가 이루어졌다.

이처럼 형성되어 온 현재의 王政 내지 首長制의 국가에서는 왕족을 비롯한 지배층에게 정치·경제상의 특권이 집중되었다. 또한 사우디아에서는 여러부족을 통합하는 이념으로 와하브派의 종교적 가르침이 활용되었기 때문에 시아派는 냉대를 받았다.

시아派주민의 정치참가는 매우 좁은 길이었으므로 중요정책 결정과정에서 소외되었다. 국민의 과반수를 시아派가 접하는 바레인에서조차 정부의 실권은 할리파家를 비롯한 순니派 아랍인 손에 장악되어 있다. 그리고 정치와 경제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이들 나라에서는 경제활동 역시 시아派 출신자에게는 불리한 여건이다.

〈불붙은 이란의 혁명〉

이러한 상황으로 인해 시아派주민은 지배층에 대한 불만이 쌓이게 된다. 1979년에 일어난 시아派에 의한 이란혁명은 GCC諸國內 시아派의 불만이 구체적 반정부행동으로 불붙은 것이다.

1979년에는 사우디의 동부유전지대 페르샤만 지방에서 시아派주민에 의한 폭동이 일어났고, 1981년에는 바레인에서도 역시 시아派에 의한 쿠데타 미수사건이 발생, 또 1983년에는 쿠웨이트에서 이라크系 시아派에 의한 미국 및 프랑스대사관 테러사건이 일어남으로써 시아파의 반정부활동이 격렬해졌다.

그후 페르샤만안에서는 이란·이라크전쟁이 끝나고 이란정세도 조금씩 안정되자면서 시아派 활동도 줄어들었다. 그러나 시아派주민 입장에서 기본적인 변화가 없는 이상, 문제발생이 언제 재연될지 예상할 수 없는 일이다.

금년 91년초의 걸프전쟁 이후, 이라크국내에서는 시아派주민의 반정부활동이 활발해짐으로써 그것이 GCC 나라들의 시아派에게 비화할 가능성도 부정할 수 없다.

전쟁후 혼란기에 치하여 국회의 재개등 데모크라시를 요구하는 움직임이 높아지고 있는 쿠웨이트와, 동부지역 석유산업 종업원에 많은 시아派를 두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 국민의 과반수가 시아派인 바레인 등에서는 보다 심각한 문제가 내포되어 있을 뿐만아니라 시아派주민에게 反美的경향이 강함을 고려하면 美國이 주도하는 灣岸안전보장의 행방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것으로 보인다.

5. 유태인의 이주·건국

〈이스라엘〉

팔레스타인지역에 유태인의 나라 이스라엘이 건국된 것은 1948년 5월 14일. 2천년에 걸친 유랑끝에, 그동안 그들에게는 온갖 차별과 박해가 있었고 독일에 의한 학살도 자행되었으나 결국은 유태인의 국가가 재건된 것이다.

세계 유태인의 고국이 된 이스라엘의 인구는 448만명(1988년통계), 그중 유태인이 82%정도인 366만명이다. 이 규모는 전세계의 유태인 1,296만명중 28%에 불과한 것이며, 美國內 유태인 594만명에 비해서도 훨씬 적은 숫자이다.

이스라엘의 유태인중 60%가량은 「세 파르티」라 불리는 -지중해 및 중동지역 출신자들과고, 독일이나 東유럽 출신은 「아슈케나지」라 칭해서 경제·사회적 격차가 커서 어느 의미에서는 인종적대립화로 발전할 여지도 있다. 그 외에 아랍인이 약 82만명 있는데 그들은 1948년 이스라엘의 독립후에도 이스라엘 땅에 남아있는 소수민족이다. 1970년대에 들어 아랍주민들간에 민족의식이 높아져 점령지의 민중봉기(인티파타)로 점차 자극되었다.

〈유태인의 정의〉

고국 이스라엘을 목적지로 하여 세계 각지역의 유태인들이 이민해오고 있다. 1950년에 제정된 귀환법은 모든 유태인에게 이스라엘의 시민권을 부여하였다. 그러나 세계 각지로부터 이스라엘로 몰려든 그들은 피부색이나 인종적특징도 다양하므로 모든 이민자들을 진정한 유태인으로 볼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났다. 또 어떤 방법으로 유태인임을 인정해야 할 것인가.

1970년에 유태인에 대한 定義가 확정되었다. 즉 귀환법에서, 유태인이라 함은 모친이 유태인이고 유

대교로 개종했어야 하며 다른 종교의 신봉자가 아닐것 등으로 규정되었다. 이것으로 일단 낙착될듯 하였으나 문제는 누가 改案을 행하였는가 이었다.

이 문제는 이스라엘 국내에서만 아니라 세계의 유대인을 둘러싼 대내쟁으로 비화됐다. 유대교로의 개종을 정통과 랍비(율법학자)가 집전해야 한다 즉 非正統派 랍비에 의한 개종은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이스라엘 정통과의 견해입에 비해, 美國 등지의 보수파 및 개혁파 유대인들 모두 그런 견해에 반발했다. 미국의 유대인사회에는 보수파와 개혁파가 많다. 특히 개혁파는 모친측이 유대인이 아니라도 부친이 유대인이라면 그 자식들은 유대인으로 인정하자는 정도로 리버럴한 편이었다.

이스라엘은 선거에 비례대표제를 채택했으므로 규모가 작은 小黨이 난립하였다. 건국이래 줄곧 연립정권을 구성했는데 그중 캐스팅보드를 쥐고 있던 종교정당의 의향이 주로 국정반영되었다.

종교정당은 유대교로의 개종문제를 정통과의 근거로 삼고자하여 유대교經典에 따라야 한다고 주장, 귀환법을 개정하자고 요구했다. 그러나 여당인 제1당은 미국 유대인의 뜻을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결정할 수 밖에 없었으므로 딜레마에 빠졌고 政爭으로 발전하기도 했다.

〈소련내 유대인의 出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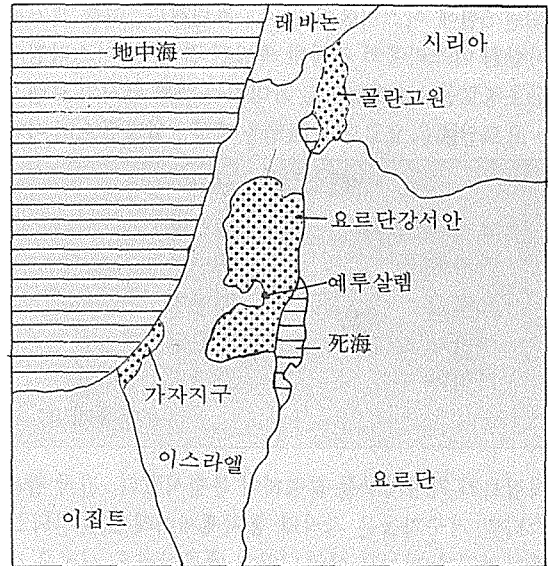
소비에트연방은 영토를 확장·합병해가는 과정에서 많은 유대인을 自國住民으로 수용하였다. 소련내 유대인은 현재 150만명으로서 미국과 이스라엘 다음가는 유대인거주지이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소련내 유대인들의 민족의식을 불붙였다. 그들은 소련출국이 합법적으로 인정되자 소련공산체제에 실망한 출국유대인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그들의이주문제는 미국과 소련의 관계로 좌우된다. 미·소관계가 냉담한 시기에는 유대인 출국허가수가 극히 적어졌는데, 고르바초프대통령이 등장하면서 페레스트로이카(改革)정책의 추진, 미·소관계 개선으로 말미암아 그 이민숫자가 증가하고 있다.

고르바초프政權 발족당시 불과 200~300명이었던 소련의 유대인 이주민이 1987년에 2,000명으로, 다시 89년에는 1만 2천여명, 90년에는 대폭 18만 5천명으로 늘어났다. 소련내의 경제적 빈궁이 앞으로도 계속되

면 이 숫자가 훨씬 더 증가할 것이다.

한편 소련거주 유대인의 이스라엘 流入에 대해 팔레스타인 주변 아랍국가들은 자신들이 빼앗긴 점령지에 그들이 대량 이주해옴으로써 이스라엘 국력이 강화됨을 경계하고 있다.



6. 팔레스타인地域

〈요르단江西岸과 가자地區〉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400만명 이상이 살아간다. 그중 팔레스타인-아랍인이 60%정도이다(88년 집계로 ▲이스라엘내에 82만명 ▲요르단강 西岸에 89만 5천명, ▲가자地區에 58만 9천명) 이렇게 많은 아랍인이 거주하므로 팔레스타인 해방기구(PLO)도 그들의 목소리를 무시할 수 없다.

요르단江의 西岸 지역은 이스라엘측이 「쥬디아」 「사마리아」라고 칭하듯이 북부 및 남부로 구분된다. 북부 사마리아지역은 푸른 풀과 농토가 비옥하여 나부르즈 및 라마라 등의 도시중심으로 상·공업이 발달했다. 남부 쥬디아는 「예루살렘」 「베들레헴」 「헤브론」 등으로 상징되듯이 종교색이 짙다. 한편 가자地區는 주민 대부분이 피난민인데 약간의 어업과 과일생산 이외에는 이렇다 할 산업이 없다.

종교적으로 보면, 가자지구 西岸의 대부분 팔레스타인들은 이슬람교 순니派이고, 라마라/예루살렘/베들레헴에는 기독교도의 커뮤니티가 있다. 이곳의 이슬람교도들은 최근 회교부흥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팔레스타인 지역의 분할〉

1947년 11월 29일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팔레스타인 분할결의(181호)가 그 땅에 아랍인과 유대인의 독립국 2개를 창설키로 구상한 것이었다. 이 안을 유대인측은 수락했으나 팔레스타인-아랍인은 거부하였다. 그후 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건국·독립했다. 이를 계기로 아랍과 이스라엘의 전쟁이 촉발된 결과로, 이스라엘이 당초영토를 1.5배정도로 확대하는 한편 당시의 트랜스·요르단국은 요르단강 서안을 점령·합병했으며 이때

◇팔레스타인 난민수	
· 요르단강 서안	41만명
· 가자地區	50만명
· 요르단	93만명
· 레바논	30만명
· 시리아	28만명
(유엔통계임)	

이집트가 가자지구를 점령하여 분할시켰다. 결국 팔레스타인 거주자들은 각지역 통치체제아래로 분산되고, 국제관리를 받기로 예정되었던 예루살렘은 서쪽을 이스라엘이 차지하면서 동쪽 절반정도는 트랜스·요르단이 합병하였다.

드디어 유대인의 나라가 실현된 반면 팔레스타인-아랍인의 국가건설은 환상으로 끝난채 70만~80만의 피난민이 발생했다. 그후 계속 이어진 전란으로 난민수는 오늘날까지 240만명 이상에 달한다.

그러나 40년후, 1988년 11월 알제에서 열린 팔레스타인 국민평의회(PNC)는 팔레스타인 독립선언을 발표, 그 정당성을 굳히고 더욱이 자신들의 지도자가 거부했던 유엔의 팔레스타인 분할결의 181호를 받아들인다.

〈팔레스타인인의 투쟁〉

그곳은 역사적 지리적으로 시리아의 남부지역을 구성하고 있다. 제1차대전 결과로 시리아는 프랑스의 위임통치를 받고 팔레스타인지역은 英國의 위임통치하에 놓임으로써 팔레스타인에는 독특한 민족주의운동이 발전하게 되었다. 종전후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그땅에 물려오는 유대인 이주민과의 투쟁을 통해 민족주의 의식을 키워왔다.

그러한 변화속에서 아랍국가들과 팔레스타인사람들도 결국은 이스라엘의 독립을 저지할 수 없었다. 1967

년 6월, 이른바 「6일전쟁」이 터진 후 요르단강 서안과 가자地區는 골란고원 및 시나이半島와 함께 이스라엘군이 점령하였다.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는 67년 11월 결의 242호를 채택, 이스라엘의 점령지철수와 중동평화의 실현을 촉구했다.

中東평화는 그후 1979년에 이르러 이집트가 이스라엘과 단독강화를 체결한 것 이외에는 진전되지 못하고 또한 이스라엘은 점령지내에 자국민을 정착시켜나갔으므로 이스라엘 점령하의 팔레스타인인의 불만이 고조되었다. 그러다가 87년 12월 가자지구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를 계기로 팔레스타인주민의 반이스라엘 폭동이 일어나 가자지구 및 요르단강 서안 전역에 확대되었으니 이른바 인디파타였다.

그들은 20년에 걸친 이스라엘의 점령정책에 대한 불만과 더불어 아랍국가들 및 PLO지도자의 무대책에 실망이 컸다. 연이어지는 폭동은 국민의 반수이상인 팔레스타인인이었던 인접국 요르단에 충격을 줌으로써 요르단의 후세인國王은 88년 7~8월에 요르단강 서안을 自國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했다. 그리하여 사태는 PLO의 독립국가수립 선언에까지 이르렀다.

이제 인디파타는 4년째에 접어들지만 투쟁의 장기화가 가져온 경제적곤란이 심각하다. 더욱이 국제사회의 무관심과 점령주민의 장래에 대한 불안은 주민봉기의 원인이 되고 있다. 앞으로의 동향은 페르샤만 위기가 낙착된 후에 국제사회가 팔레스타인문제에 어떻게 대응하는가에 달려있다.

7. 종교대립의 격화가능성

〈古代 이집트문명과의 격차〉

관광객들이 이집트에서 만나는 현지주민들은 민족적으로 古代이집트인의 후예라고 보기 어렵다. 이집트는 7세기 후반 아라비아반도에서 침입해온 이슬람세력에 정복되어 결정적인 변화를 겪었다. 언어는 古代이집트語, 고프트語로부터 셈語系인 아라비아語로 변하고 종교도 古代의 多神教, 로마시대의 기독교로부터 이슬람교로 변했다.

아라비아語 및 이슬람교가 지배층으로부터 일반대중에게 침투되기 까지는 얼마간의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에 의해 오늘날 민족의 기반이 만들어졌다. 바꾸어 말하자면 이집트의 민족문

제는 기본적으로 언어와 종교가 상위함을 축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주요언어인 아라비아어>

현재 이집트사람의 대부분은 아라비아어를 말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집트사람들은 동쪽의 이라크에서부터 서쪽의 모로코에 까지 이어지는 아랍세계에 속하며 따라서 아랍인이다.

그런데 한마디로 아라비아어라 하더라도 코란을 기준으로 성립한 정통 아라비아어는 아랍인중에도 고학력자가 아니면 훌륭히 사용하지 못한다. 길거리에서 이집트인들이 말하는 아라비아어는 구어체인 이집트사투리이다. 더욱이 국내에서도 계층과 지방에 따라 발음과 어휘에 미묘한 차이가 있다. 英語에서 볼 수 있는 계층적 상위를 표현하는 「마이·페이·레이디」라는 세계가 이집트인에게도 극히 친근하다. 또한 지역차에서도 특히 상이집트인(사이티이)의 말투가 카이로시민에게 놀림받기 쉽다. 그들의 순박한 행동을 빗대어 「사이티이 얘기」라 농담할 정도다.

한편 아라비아어 이외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도 있다. 대표적 예는 나일·사하라語系의 말을 사용하는 누비아인이다. 그들의 고향은 수단과의 국경에 가까운 이집트 최남부이다. 그러나 교역이나 결혼 등으로 시골을 떠나 도시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많다. 또한 아스완·하이·댐을 건설하는 바람에 강제적으로 이동이 많아져 그런 경향이 더욱 조장되었다.

<고프트교의 존재>

또한 古代이집트語에 연결되는 고프트語가 있다. 이것은 A.D. 451년 칼케돈회의의 결과, 로마 카톨릭교회로부터 독립한 기독교 單性論派의 하나인 고프트·그리스도教徒가 정식의례때에 사용하는 언어이다. 그들은 알렉산드리아항에 본부를 두고 7세기 이래의 이슬람化 흐름속에서도 자신들의 신앙을 고수하면서 일정한 독립성을 지켜왔다. 현재 이집트국민의 10%정도는 기독교도이다.

이슬람세력 지배하에서 기독교도에게는 특별한 세금이 부과되어 일종의 사회적 차별이 행해졌다. 그러나 보통 상상되는 정도의 탄압은 없었다고 한다. 이슬람교와 기독교 그리고 유대교와의 다름은 오히려 근대에 들어서면서부터 격화되었다는 것이 통설이다. 그에 대한 역사적사실은 여하튼간에 오늘의 이집트에서는 다수파

인 이슬람교도와 소수파인 고프트·기독교와의 사이에 미묘한 협조와 대립관계가 보인다.

이 양자의 협조예를 보면, 1968년에 돌발했던 聖母 마리아의 출현애기가 있다. 즉 수도인 카이로市 어느 교회에서 깊은 밤 마리아가 나타났다는 소문이 확산되자 이윽고 고프트教의 大司教가 그 「기적」을 사실로 인정했던 것이다.

사회학적으로는 전년의 제3차 중동전쟁에서 완패하여 자신을 잃고있던 이집트국민이, 이슬람교주나 고프트·그리스도教나 함께 共有할 수 있는 종교적 심볼에 의해 국민적통합을 표현코자 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대립적인 사례는, 1981년 6월 카이로市 빈민가에서 발생한 兩教徒들의 무력충돌이다. 양쪽 모두 수십명씩의 사망자가 나왔다. 당시는 사다트대통령 체제의 말기로서 그의 정책에 대한 비판이 국내외에서 높아졌다. 그리고 이슬람根本主義者들의 움직임도 활발해져 그것이 고프트教徒와의 대립자세를 격화시켰던 것이다.

아랍·내셔널리즘의 입장에서 보면 함께 아라비아어를 쓰는 이슬람교도와 고프트教徒는 하나의 민족일 뿐이다. 그러나 근래의 종교부흥기운이 고양됨에 따라 양쪽의 급진적과격파들은 상대방에 대한 공격적태도를 더욱 치열화하는 듯하다. 아랍으로서의 求心力과 종교적분리의 遠心力 이 두가지가 앞으로 이집트 민족문제 의 향방에 복잡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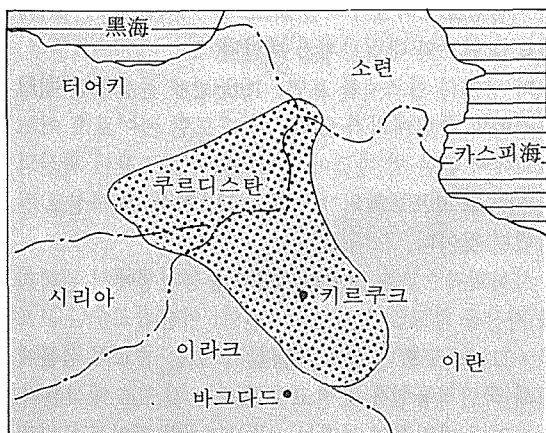
8. 다섯나라에 걸쳐있는 쿠르드족

<비극의 소수민족>

이라크內戰에서 그 이름이 알려진 쿠르드族은 총 2천만명에 달하는 바, 이라크의 총인구 1,800만명 보다 더 많은 셈이다.

이들 쿠르드족의 비극성은, 생활하고 있는 산악지방 「쿠루디스탄」 지역이 여러 국경선에 의해 갈라져있기 때문에 소련, 터어키, 시리아, 이라크, 이란의 5개국으로 주거지가 분단되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들이 속한 각국에서 소수민족일 수 밖에 없다.

분단된 5개국내에서 가장 쿠르드족이 많은곳은 터어키로서 약 1,000만명 총인구의 20%가량이다. 다음은 이란과 이라크인데 각각 400만~500만명씩, 총인구의 10%와 20%에 상당한다.



〈쿠르드족의 특성〉

쿠르드語는 인도·유럽語系인 페르사語에 가깝다. 그래서 인종적으로는 아랍이나 터어키 보다는 페르사인에 가깝다. 사실, 많은 쿠르드인의 신체특성은 흰피부, 금발, 푸른눈이다. 종교적으로는 이슬람教순니派가 주류이다.

이에 비해 거주지역인 쿠르디스탄은 이슬람적인 신비주의 영향력이 강하다. 그 교단은 역사상 정치적 큰 일을 자주 연출해냈다. 히말라야山脈의 구루카 같은 산악민족과 마찬가지로 쿠르드族도 용감한 전통을 자랑한다. 기독교십자군을 격퇴한 이슬람世界의 영웅 살라딘이 바로 쿠르드족이다. 그곳 산악지형과 그들의 용맹성은 잘 조화됨으로써 역사상 쿠르드족은 완전지배했던 정권은 없었다. 때문에 쿠르디스탄에서는 항상 주변 왕국들의 명목적지배를 받는 부족들이 서로 다투는 군웅할거상태로 계속되어왔다.

19세기말부터 20세기초엽에 걸쳐 유럽에서의 민족주의가 中東에 침투할 때 쿠르드족들도 스스로의 국가 건설을 원하게 되었다. 그러나 민족주의 이념이 높아졌을 때는 이미 쿠르디스탄전역이 이란과 터어키의 민족주의, 영국과 프랑스의 제국주의에 의해 분할되고 말았다. 특히 터어키쪽 쿠르드인은 모국어어를 거의 잊어버려 「산악터어키인」으로 분류될만큼 그 존재가 부정되기에 이르렀다. 또 이란, 소련, 시리아지역에서도 쿠르드족의 자치와 독립은 실현시킬 수 없었다.

〈이라크内の 쿠르디스탄지역〉

이라크정부에 대한 쿠르드족의 투쟁은 현대의 이라크 역사만큼이나 오랜 것이다. 왜냐하면 제1차대전후

오스만제국 영토이었던 일부지역에 이라크라는 국가를 英國이 만들때부터 쿠르드족은 바그다드정권에 대립하였기 때문이다.

이어서 1920년대에는 쿠르드족 반란을 진압하기 위해 英國전투기가 출격, 毒가스폭탄을 던지기도 하였다. 그래도 자치·독립운동의 열정은 끊이지 않았고 탄압도 가혹해졌다. 오늘에 이르기까지 쿠르드족은 일관성을 갖고서 때로는 분리독립을 또 때로는 자치를 목표로 바그다드에 저항하였다. 최근의 예로는, 이란-이라크 전쟁시의 자치요구운동이 있다. 쿠르드족은 이란의 지원을 받아 이라크정부군과 대치했다. 이라크는 쿠르드족의 마을 하라브자를 화학무기로 공격하는 등 잔학한 수단을 동원했다. 그 전쟁이 끝난후에도 고립된 쿠르드족에게 이라크공군은 화학무기 폭탄을 퍼부었다. 반란은 종식된듯이 보였다.

그러다가, 1991년 걸프전쟁에서 이라크가 패배한것을 기회로 잡아 쿠르드족은 다시 봉기했다. 주요조직은 자랄·타라바니가 이끄는 쿠르드愛國同盟(PUK)과 마자드·발자니가 인솔하는 쿠르디스탄民主黨(KDP)이 있다. 前者는 주로 시리아로부터 후자는 이란에서 원조를 받았다. 이제부터의 문제는 무엇보다도 PUK와 KDP와의 관계를 조정해가는 일이다.

여기서 주목되는 것은 쿠르드족의요구가 自治에만 국한하여 「독립」까지는 주장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이는 이라크의 쿠르드족이 독립할 경우 自國內쿠르드족에게 그독립열이 비화할 것을 겁낸 터어키와 이란이 반발할 터이므로, 쿠르드족은 스스로 제한적인 자치요구만을 하는 것이다.

현재 이라크쪽에서는 정부군이 우세하여 쿠르드족은 국외탈출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상황은 예상불허이다. 미국은 쿠르드족과의 대화를 개시했다. 쿠르드족의 움직임이 이라크의 장래를 더 나아가서 페르샤만안 전체의 장래를 좌우할만한 상황을 만들어낸다는 전망도 크다. 그들의 동향이 주목된다.

9. 분쟁에 휩싸인 이란

〈복잡한 민족구성과 언어〉

이란은 국민의 3분의1이 英語圏에 속한 西歐化에 물든 나라이다. 그렇게 많은 국민이 국어인 페르사語와

◇이란의 인구 구성

· 페르샤인	71.0%
· 아제르바이잔인	11.0%
· 쿠르드인	7.0%
· 아랍인	5.0%
· 터어키인	1.5%
· 기타민족	4.5%

※혁명이전의 통계임

英語를함께 써야만 하는 것은 물론 아니다. 그들이 사용하는 것은 페르샤語를 중심으로 소수민족어인 터어키系의 아제리語와 쿠르드語 등이 섞인 언어이다. 이러한 언어실태가 반영하는 바는 이란의 복잡한 민족구성이다.

사실 이란에서 페르샤인은 70%정도이고 나머지는 소수민족이다. 주요 구성민족의 거주지를 시계방향으로 쫓아보면, 동북부에 사는 터어키인이 있고 남동부이란령 바르키스탄지역의 바르티, 남동부석유생산지대인 푸제스탄쪽의 아랍인, 그리고 북쪽이란령 쿠르디스탄지역의 쿠르드족, 그 위쪽 서북부이란령인 아제르바이잔쪽에 사는 아제르바이잔 등이 있다. 또한 도시와 근교에 사는 유대교도들과 아르메니아인 등 다민족으로 구성되어있다.

〈국경이 없는 사람들〉

이러한 이란의 민족정책을 한마디로 말하자면 민족정책이 없는거나 마찬가지다. 중앙정부는 민족차이라는 생각을 거부해왔다. 공화국 이전 王權시대에는 페르샤민족주의가 전국민을 강압했다. 그러나 그런중에도 중앙정부가 약체화 할때는 여러민족들의 분리·자치요구가 높아졌었다. 지난 1980년전후의 이슬람혁명이가 그러한 시기의 하나로서 자치요구가 도처에서 터져나왔다.

하지만 王制를 뒤엎고 성립된 혁명정부의 입장도 결국은 종전의 샤(國王)의 민족정책과 큰차가 없었다. 혁명정부의 공식견해는 민족주의라는 것이 이슬람세계를 분열시키려는 서방세계의 음모라는 것이었다. 모든사람이 神앞에 평등하다고 설교하는 이슬람으로서는 민족의 구별이 중요하지 않다. 따라서 민족주의에 근거한 자치요구는 문제로 삼고싶지 않은 것이다.

종교적 소수파에게 어떤 권리를 줄수는 있더라도 민

족적 소수파의 자치라는 발상은 현재제내부에 회박하다. 즉 이란·이슬람共和國의 이념은 사람들을 소속민족에서가 아니라 소속종교로 구별하자는 것이다. 수도 테헤란에서의 권력투쟁이 종교세력의 승리로 끝나 중앙정부의 기반이 균해질수록 소수민족의 자치요구가 억압되었다.

그런데 이란자체가 안정되더라도 주변국가들이 혼란하면 민족문제들이 이란내에서 재연될 수 밖에 없다. 이란내의 소수민족은 실로 이란 만이 아니라 주변국가내에도 거주하기 때문이다. 동북부의 터어키인은 소련과 아프가니스탄내에도 살고있다. 남동부의 바르티인의 생활공간은 파키스탄과 이란에 걸쳐있다. 또 남서부의 아랍인이 이라크의 다수와 같은 민족이다. 뿐만아니라 쿠르드인은 이라크, 시리아, 터어키, 소련에도 거주하며 北西部의 아제르바이잔인은 소련과 이란 양쪽에 퍼져있으므로 다시말해 이란의 소수민족들은 국경을 초월하는 국경이 없는 주민들이라 할 수 있다.

〈민족문제의 한가운데서〉

이란 주변의 나라들은 대부분 혼돈상태를 안고있다. 서쪽 아프가니스탄에서는 1989년 소련군이 철수한 후에도 카불(首都)공산정권과 몇몇 게릴라세력이 서로 위상을 굳히고자 내전을 계속하고 있다. 파키스탄에서도 집권 하크장군이사망한 다음 정치불안이 끊이지 않는다. 이란의 북쪽 소련 역시 민족문제가 불붙고 있다. 동쪽에서는 터어키령 쿠르디스탄에서 쿠르디勞動黨(P-KK)의 게릴라활동이 여전하고, 걸프전쟁이 끝났어도 이라크에 혼란이 지속된다.

이렇듯 이란은 中東과 소련과 印度亞대륙의 민족문제 한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면 에서 이란 움직임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10. 확산되는 〈베르베르운동〉

〈아랍인과 베르베르인〉

아프리카 北西지방 11개국에 걸쳐 1,000만명이상에 달하는 베르베르인이 살고 있는데 그들은 아프리카·아시아語系인 베르베르語를 母語로 사용한다. 그중마그레브3국에는 인구비례로 모로코에 40%이상, 알제리에 20%, 튀니지에 15%정도의 베르베르인이 섞여있다.

주로 아틀라스山脈과 사막의 오아시스등 외부로부터

영향을 받기 어려웠던 지역에 거주하며 지역별로 조금씩 다른 사투리를 쓴다. 기원은 분명치 않으나 北西 아프리카의 先住民族이다.

7세기 후반부터 이슬람化 및 아랍化가 진척됨에 따라 이주해 온 아랍인에게 베르베르인은 同化되었으나 언어와 고유문화 그리고 사회적특징도 유지되어온 편이다. 따라서 여타국민들과의 다른 점이 때때로 차별대우를 빚었다는 면이 있는 등 소수민족의 특징을 다소 갖고 있다. 그러나 베르베르인의 구성비가 더 높은 모로코에서 보다는 알제리에서 그들 문제가 더 첨예화되었다.

알제리의 경우, 프랑스로부터 132년간이라는 오랜 식민지통치를 받은 후 1962년에야 독립을 달성했다. 독립되면서 아랍語를 국어로, 이슬람을 國敎로 하는 헌법을 채택했으나 당시 베르베르인도 이에 반대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국민통합의 이데올로기로서 사회주의가 前面에 내걸린 민족주의운동 초기부터 아랍인과 베르베르인이 함께 투쟁했으며, 독립후에도 민족해방전선(FLN) 중심의 정치체제에 베르베르系 인사들이 중추적 위치에 포함되었기 때문이다..

경제면에서 보면, 베르베르인의 일부집단주거지대는 과수재배와 소규모 목축에 의존하는 빈곤지역이다. 그러나 북부산악지대인 카빌지방을 중심으로 首都 알제에 사는 카비르인이 베르베르族 전체의 5분지4를 차지한다. 그들은 교육의 보급결과, 또 이른시절부터 프랑스로 옮겨사는 생활등으로 인해 사회지위를 개선하는 한편 독립후의 심각한 인재부족상태에서 고급관료 및 기술직·전문직을 많이 차지하였다. 이에 대해 오히려 다수파인 아랍인들이 불만을 품는 실정이다.

<국민문화와 국민통합>

그런중에 알제리에서 베르베르족의 문제가 명확하게 민족문제로 나타난 것은 1970년대 후반이었다. 즉 공업혁명, 농업혁명과 더불어 「문화혁명」을 국가건설 주제의 하나로 내세우게 되자 이슬람교와 아랍어를 국민통합의 중심이념으로 채택하면서부터이다. 교육·행정은 물론 일상생활의 모든 분야에서 정부는 급속한 아라비아語化 정책을 추진하려 했다.

알제大學의 베르베르語 강좌의 폐지, 라디오의 베르베르語방송 단축, 카비루인가수의 연주 및 연극상연 금지, 베르베르語 출판물의 금지 등 아라비아語만을 중시하는 일련의 정책은 베르베르인에게 문화적탄압으로

받아들여졌다.

특히 1976년의 국민헌장에서 自國의 역사·문화를 기술하는 내용중, 베르베르인의 기원이나 알제리 문화속에서 베르베르文化의 위치가 한마디도 언급되지 않은 것은 베르베르족을 크게 실망시켰다.

그래서 자신들의 고유문화를 말살하여 강제적으로 아랍化를 도모한다는 위기의식을 품게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베르베르인들의 항의활동이 속출하고 고유문화운동이 성행되다가, 1980년 4월 그들 주민이 많은 디자와스市에서 이른바 「디자와스事件」이 발생하였다.

즉 문화공연을 중단시킨데 항의하여 디자와스大學生들을 중심으로 가두시위와 파업이 발생, 쏘카빌지방 노동자에 과급되면서 경찰과의 충돌이 많은 사상자를 내었고 수도 이외의 도시에도 항의운동이 확산되었다.

당국은 이 사태를 국민통합 저지파인 신식민주의자들이 결탁한 반동세력이라고 비판했다. 파업주도자들은 그것이 국민통합과 체제를 타도하려는 목적이 아니라 민주주의 및 표현의 자유를 요구하는 것이라고 반론했다.

그 후에도 베르베르인 지식층과 학생들은 항의태도를 거듭하고 프랑스로에 조직을 만들어 저항을 계속, 88년 10월수도 알제에서 발생한 폭동을 계기로 급속한 민주화운동과 복수정당제실현을 추진하였다.

결국 카빌지방을 중심으로 결성된 「문화와 민주주의를 위한 연합」(RCD)은 사회민주주의를 내세워 1990년 지방의회선거에 참여했다. 이 선거에서 이슬람구국전선(FIS)과 민족해방전선(FLN)이 압승했음에 비해 RCD는 카빌지방에서 다수파를 차지한 것 뿐이었지만, 아라비아語 및 프랑스語와 함께 베르베르語로도 기관지를 발행함으로써 활동범위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政敎분리를 공공연히 주장할 수 있었음은 그만큼 의의가 컸다.

그러나 이슬람구국전선은 회교부흥운동을 표방하여 FLN이상으로 베르베르운동을 적대시하고 있으므로 전도는 결코 낙관할 수 없는 형편이다.

11. 마찰 빛는 종교차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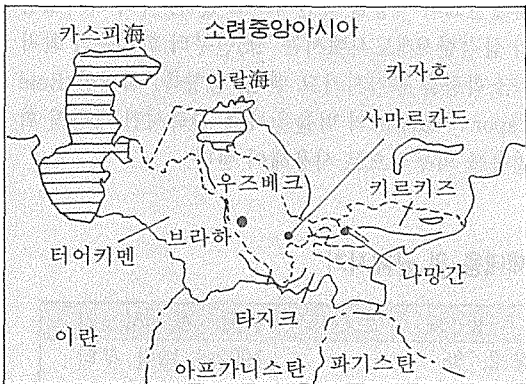
<소련 中央아시아와 이슬람>

소련의 중앙아시아지역은 이슬람교를 받아들인 역사가 거의 1,300년이나 된다. 부하라 및 사마르칸드 같

은 문화도시를 중심으로 이슬람문명 발전에 크게 공헌한 지역이다. 그러나 19세기의 러시아인이 그곳에 눈독을 들인것은 조만간에 러시아文明에 同化될듯 희미해진 이슬람문명의 모습이었다.

과학적무신론과 국제주의를 주장하는 소비에트政權도 이슬람의 사멸을 기도했다. 이슬람을 특히「諸民族의 접근을 저해하는 배타적 요인」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견해는 역사의 중요함을 경시한 낙관적 전망에 지나지 않았다. 소비에트정권의 국가적 노력도 이슬람의 전통을 소멸시키지 못했다. 예를 들면, 경건한 신자임을 그만 둔 사람이라도 이슬람관습과 가치관은 전수해야 할 민족문화로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

근래에는 민족의식이 높아지면서 이슬람전통·유산에 대한 적극적평가 그리고 신앙의 활성화가 진행되고 있다. 우즈베크人是 이제 우즈베크語로 저들의 經典인 코란을 읽는 것이 가능하다. 또 현재사용중인 러시아文字에 포함되지 않은, 혁명전의 아라비아文字를 재생시키자는 운동도 활발해졌다.



〈이슬람에 대한 편견〉

중앙아시아 민족문제의 배경에는 다양한 요인이 지적되고 있다. 예를 들면 소비에트연방 증추에 대한 중앙아시아의 종속적 경제시스템의 모순이 그것이다. 중앙아시아는 식민지시대와 다름 없이 면화재배가 주업인데 그 일은 한달임금 5루블의 경우도 있을만큼 저임금에 지탱하고 있다.

그런데 면화밭을 무계획하게 확대하는 바람에 수자원을 고갈시키게 되고 그로인해 아랄海(호수)의 수량을 탈취, 大湖水의 건조화라는 심각한 자연환경파괴를 초래하였다. 중앙아시아의 천연자원은 지방민에게 무자비하게 착취당했지만 이상하게도 그 지방의 20%가

넘는 실업률을 개선하지 못했다. 중앙아시아는 소련내의 제3세계라 할만 하다.

정부의 잘못된 이슬람정책도 역시 민족간의 마찰을 일으킨다. 소비에트내 유럽系 행정관료들은 이슬람을 「反人民的종교」라는 관념을 갖고 있다. 페레스트로이카(개혁)시대가 되어어도 이슬람종교단체는 러시아(회람)正敎와도 달리 부당한 차별을 받는 실정이다.

어느 연구소 전문가는, 강력한 西歐化추진 및 문화침략이 이란과 아프가니스탄에 이슬람原理主義운동을 불러일으켰던 사례를 열거하면서 소련정부의 대응방침을 비판했다. 또 이슬람에 대한 부당한 처우는 큰 손실을 초래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다.

〈행동하는 이슬람〉

그러한 염려가 다만 기우에 지나지 않을까? 1990년 말「소비에트·타지키스탄」신문은 근래 타지크共和國에서 활동중인 전투적 복고주의조직인 「와하브派」에 관해 독자의 주의를 환기했다.

그 조직은 이란 및 아프가니스탄内の 이슬람조직에게 지원받고 있다는 것이며, 이슬람공화국 수립을 목표로 빈곤층·농민에서부터 首都등 도시민과 대학생에게로 조직을 뻗어간다는 것이다. 그들은 선전과 권유활동 이외에 테러행위도 불사하는데, 체포된자는 모두 형사 재판에 회부된다. 그들의 조직활동 배경에는 타지크共和國의 심각한 경제난이 깔려있으나, 실제로 그들의 감행하는 활동은 이슬람에 대한 옛부터의 편견과 오해를 더 증폭시키는 셈이된다.

그러나 이슬람이 항상 민족대립의 요인이 되는것만은 아니다. 90년 12월 우즈베크공화국의 나만간市에서 정부군과 지방청년들간에 집단난투사건이 벌어졌을때 「이슬람聖職者」는 사태진정화에 적극협력하였던 것이다. 민족분쟁의 억제나 조정에 있어서 이슬람지도층이 얼마큼 공헌할 수 있는가. 이는 주목해야 할 문제의 하나다. 부흥하는 이슬람세력은 자신들의 眞價를 묻고 있다.

한편 중앙아시아지역 이슬람을 대표하는 「중앙아시아·카자흐스탄·무슬림·宗教管理局」은 소비에트정부와 협조하면서 독자적으로 중동의 이슬람국들과 외교를 전개중이다. 이슬람은 앞으로도 중앙아시아 민족문제의 모든 국면에 걸쳐 미묘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

〈계 속〉